

강진군, '명품샤인머스켓재배' 컨설팅



강진군은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및 관심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샤인머스켓 포도 생산을 위한 전문 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1시간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포도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농작업 일정에 맞춘 이론 및 현장교육을 겸하고 있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경북 대경포도영농조합법인

영농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농가 호응도 높아 경북 대경포도영농조합법인 박재현 박사 초빙

박재현 박사를 초청해 고품질 재배기술을 기본으로 시기별 영농 기술 시연을 진행한다. 또한 화수정리 방법, 적심, 생장조절제 처리 등 당면 영농작업 위주의 실습교육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교육 수강생인 최병열(성전면)씨는 "이론 강의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와서 눈으로 보며 하는 교육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교육생들끼리의 토론도 활발하다. 현장강의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이 더욱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론교육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품질 향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현재 7ha, 20농가가 샤인머스켓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샤인머스켓 연구회를 구성해 각종 재배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정중순 장흥군수, 영농철 발로 뛰는 현장행정 용산면 풍길마을 찾아 농업인들과 애로사항 청취 시간 가져

장흥군은 지난 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용산면 풍길마을 영농 현장을 방문했다. 이양작업을 직접 체험하며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영농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가와의 소통을 이어갔으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만 40세이상 주민 무료 간염 검사 실시

주민 400여명 대상 B형·C형 검사...사후 관리도

진도군 보건소가 간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만40세 이상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B형·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한다.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대표적 위험인자로 간암 발병률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간염 검사를 원하는 주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진도군 보건소 1층 임상 검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의원 의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간암 검진 대상자로 등록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함께 실시

한다.

또 B형 간염 항체 미형성자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하며, 간암 고위험군은 식습관 개선과 개인위생 관리 등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조기검진으로 간암 발생을 감소와 자가 건강 관리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나만 아는 해남명소 '히든해남' 찾아볼까

해남군, 가정의 달 맞아 히든해남7선 인증샷 이벤트

해남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해남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 인증샷을 남기면 해남특산물을 증정하는 히든해남7선 인증샷 이벤트를 갖는다.

히든해남7선은 해남군과 사진작가협회 해남지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명소와 비대면 관광지 위주로 7곳을 선정했다.

기간은 7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으로, 7선 중 한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샷을 찍고 군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해남 특산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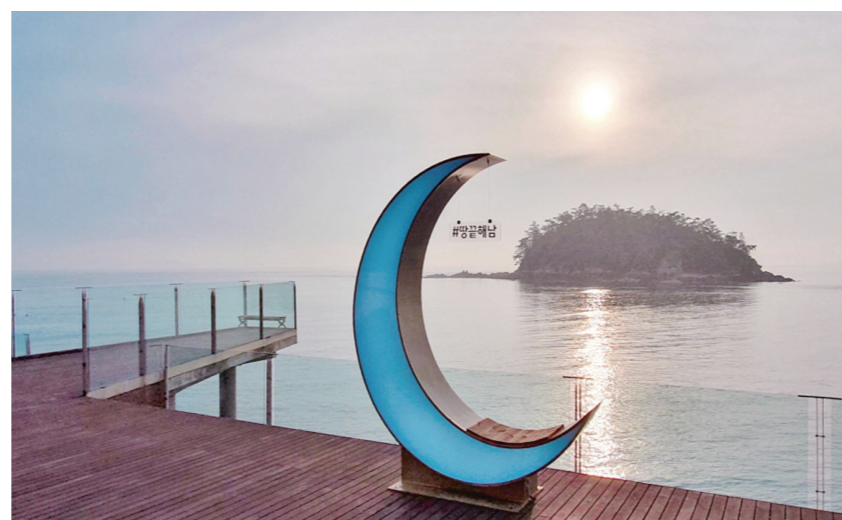
히든해남7선은 해남읍의 금강저수

지 돌레길, 송지면 땅끝등대, 화원면 예술의 거리, 북평면 해월루 산책로, 현산면 4est수목원, 마산면 해바라기농장,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이다. 자세한 주소는 해남군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산면 해바라기농장과 4est수목원의 경우 2019~2020년 방문 사진으로도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들 중 40명을 추첨해 당첨자들에게 전복, 밤호박 등 해남특산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 사랑하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는 가족들과 해남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해남의 숨겨진 명소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위한 토론회 오는 14일 개최

완도군은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완도군민영화와 완도군청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완도군과 대중교통포럼 주관, 전라남도 후원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 강승필 교수가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11

월 국회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접근성 개선은 물론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우리 군에 많은 변화가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속철도를 구축하는 데 다양한 정책 방향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전라남도, 정치권 등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수를 100명 미만으로 하여 진행한다.

완도=이민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